

# 경제부시장 불러 도시철도 2호선 '연기론' 따져

##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1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이례적으로 우범기 경제부시장을 감사장에 출석시켜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한 재정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고, 최근 불거진 '건설 연기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동찬(새정치·북구 5) 의원은 "운장현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와 관련,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했는데 공식

적으로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면서 "시가 '건설 불가' 방향으로 자료를 만드는 등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가 구체적인 재정분석을 통해 의회와 시민을 설득해야하는데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전과 대구 지하철 사례와 비교해도 재정이 지장이 없는데도 건설 불가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경제부시장은 "현재까지 시민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없지만, 다음주 TV토론 등을 거쳐 12월 중

결정 입장을 조금 앞당기겠다"면서 "재정 분석과 대전·대구 지하철 2호선의 상세한 분석 내용들을 이번 주중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중(새정치·광산 4) 위원장은 "사흘 전 출석을 통보했는데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애매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질책한 뒤 "시가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재정'에 대해 고민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운 시장이 최근 지역 국회의원회와 만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연기 의사를 피력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다. 반재신(새정치·북구 1) 의원은 "4~5년 연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에 따른 건설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면서 "연기한다면 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나, 나중에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허용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우 부시장은 "지하철 2호선 건설 연기는 시장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기를 하면 불가상승률 등에 따라 건설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승원 칼럼

"한심한 영혼아, 너는 돈을 주고 빵과 고기와 포도주를 사서 먹는 것이 아니고, 흰 종이를 꺼내서 '빵, 고기, 포도주'라고 쓰고 그 종이를 먹는구나." 그리스 소설가인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소설가들을 향해서 한 말을 생각하며 이 칼럼을 씁니다.

공무원을 가리켜 철밥통을 보듬고 사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재임시 절대로 밥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퇴임 후에는 연금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간성이므로 나라가 국민의 혈세로 삶을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관리(官吏)라는 말은 '관'과 '리'가 합쳐진 말입니다. 옛날의 '관'은 중앙 정부에서 임명하여 지방으로 내려 보낸 목민관(시장, 군수)이고 '리'는 그 지방에 살면서 관청에 근무하는 아전들입니다.

조선조 후기에 정치가 문란해 있을 때는 벼슬을 사고팔았습니다. 돈으로 이천 냥, 삼천 냥이면 군수나 도지사 벼슬을 샀습니다. 그들은 부임하기 무

니다. 지자체장을 비롯한 모든 선거에 출마한 자들은 엄청난 돈을 씁니다. 선거 과정에서 토호세력(향원; 각종 회사 사장, 사업가, 사회단체장)들이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회와 군수와 시장을 내 편 사람으로 뽑으려고 은밀하게 돈을 찌릅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토호세력이 군수, 도지사, 시장,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모든 이권을 쥐락펴락합니다.

거기에는 일부 공무원들이 토호세력과 뜻을 합하여 내 편인 군수, 도지사, 시장을 등에 업고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몇몇 고위 공무원들은 공기업의 장이나 임원을 맡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퇴임한 후 연금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월호가 가리앉은 다음 그와 연관된 공무원들과 공기업체 사람들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는가를 우리는 속속들이 살핍니다. 원자력 발

## 한심한 소설가의 횡설수설

쉽게 밀친 뽕기 위해 백성들의 고향을 찢었습니다.

그 목민관 밑에는 간사한 아전들이 떡고물을 먹기 위해 국고나 세금의 문서를 조작했고, 그 지방의 토호들은 그 목민관과 술자리를 함께 하거나 사냥을 모시고 다니면서 각종의 이권에 개입했습니다.

지방자치제인 오늘의 목민관은 백성들이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오늘의 아전들은 시청이나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논어' '맹자'에 "향원(嚮愿)은 덕성스러움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원은 목민관을 속이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방의 토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도지사, 시장, 군수와 아전의 묵인 하에 토목사업을 일으켜 이익을 챙기고, 백성에게 가야 하는 환곡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투명해진 오늘에는 향원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목민관은 도지사, 시장, 군수,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을 말하고 아전(吏)들은 각 부처의 장·차관과 모든 직급의 공무원들을 말할

전소, 철도청의 납품비리, 공군 비행기 수입 리베이트, 포탄과 군수품 납품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너무 확장시켜 놓은 그 연금 때문에 나라 살림살이가 크게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연금 수준과 비슷하게 줄여야 하는 것이고 지급 시기를 65세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죽기 살기를 무릅쓰고 정부 정책에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정부 여당은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야당은 국민 합의를 도출하지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차 방만한 연금 지급으로 인해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날지라도 자기들만 철밥통을 보듬고 만년을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그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디, 연금다운 연금을 받지 못하고, 빈 손가락만 뻗고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을 감안하시어, 모두를 냉정하게 대화의 광장을 열고 적의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소설가>

# 퇴직 고위공직자 10명중 4명 산하기관 재취업

##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1일 열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업체 취업과 까다로운 주민감사청구제도, 사립학교의 '쥐꼬리' 재단전입금이 도마에 올랐다.

◇전남도, 퇴직공직자 취업률 39.29% =지난해부터 2년간 전남도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업체,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행

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년간 취업 제한대상 4급 이상 퇴직공직자 84명 가운데 33명이 재취업해 취업률은 39.29%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퇴직 후 1년도 안 돼 취직에 성공했다.

이 가운데 지방기술서기관들은 퇴직 6개월 내에 건설사,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사사무소, 법인 등 직무관련성이 높은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유명무실" =박철홍(새정치·담양1)의원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단 한 건의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없고, 주민감사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단 6건만 청구(수리3·각하3)됐다.

◇"광주일보 10월9일자 1면" 박 의원은 "대부분 도민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며 "청구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도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전남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쥐꼬리'

=전남도내 사립·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단이 해당 학교 운영비를 부담하는 재단전입금은 전체 운영비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단의 운영예산총액은 2862억3000여만원이다. 이 중 재단전입금은 전체의 4.5%인 129억6000여만원에 불과했다. 공납금 등 자체수입은 전체의 9.7%인 277억9000여만원이다. 나머지 85.8%인 2454억8000여만원은 도교육청의 재정결합지원금으로 충당했다. /윤현식기자 chadol@

## "軍위안부 문제 협의의 독려"

### 한·일 정상 8개월만에 대화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격 대화를 나눴다. 특히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양국 국장급 협의가 잘 진전이 되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내의 수영경기장인 '수이리팡'(水立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푼 APEC 갈라 만찬에서 아베 총리와 옆자리에 앉아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민정속대변인이 밝혔다.

두 정상이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연합뉴스



동상이몽

11일 오전 중국 베이징 외곽 엔치후에 자리잡은 '국가회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의 세션1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선 위로 종주국으로  
개의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 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  
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  
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민 모두가 시점 주인이다.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애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